

동네상권발전소 각지뉴스 보고서 Vol. 1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 본
2024 남문전통시장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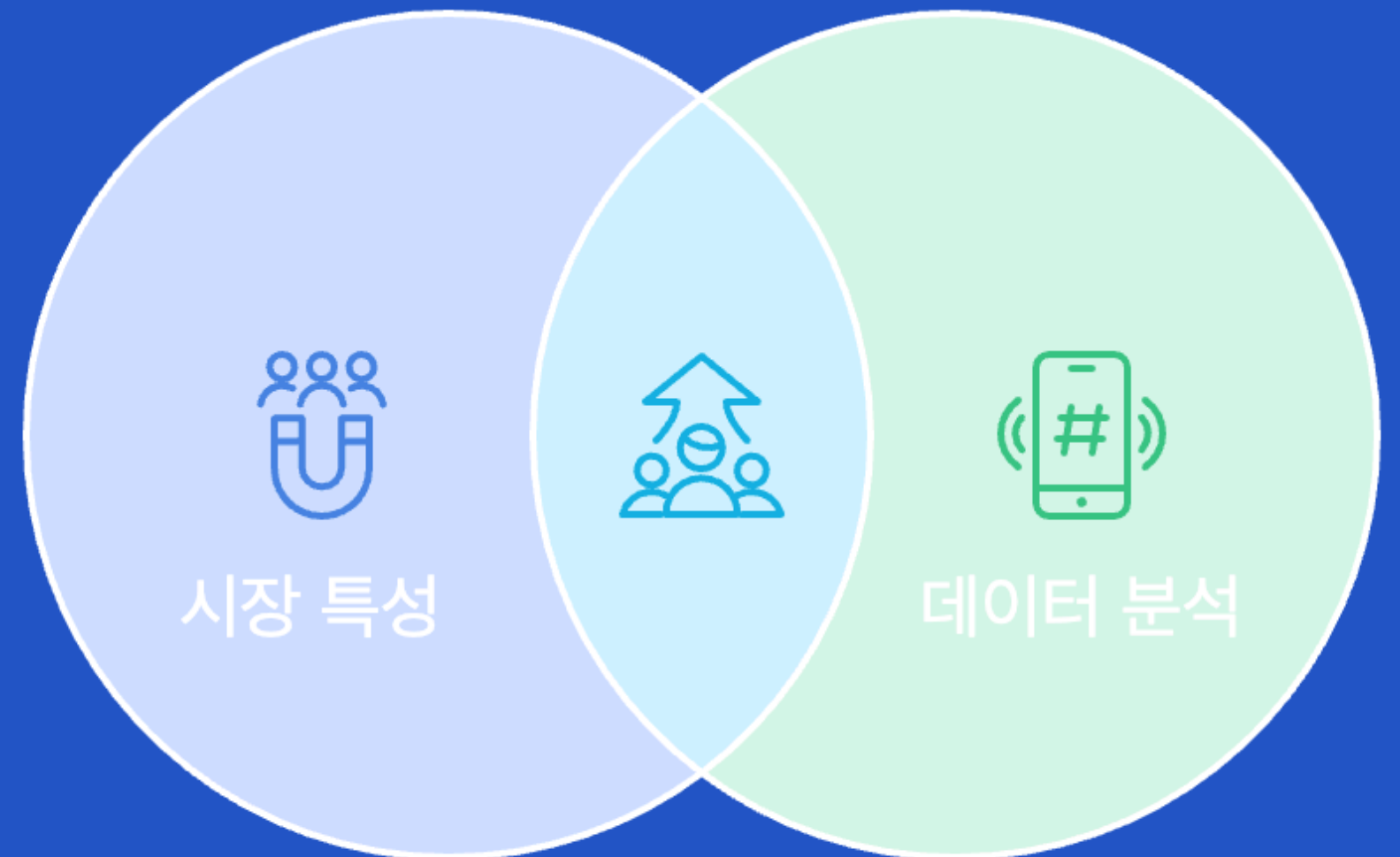
이번 동네상권발전소 각지뉴스 보고서 Vol. 1은 남문전통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시장들에 대한 데이터 기반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전문 보고서임. 남문전통시장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해 온 9개의 개별 시장으로, 각각의 상권이 독특한 성격을 가지며 성장해 왔음. 이번 보고서는 남문전통시장의 핵심 시장인 영동, 못골, 지동 시장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상권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조명함.

분석 대상 데이터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네이버 검색 트렌드 및 소셜 미디어 언급량을 활용하여 상권별 관심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함. 이를 통해 각 시장이 가지는 특성과 잠재력을 논리적 연결성을 바탕으로 해석하고, 향후 상권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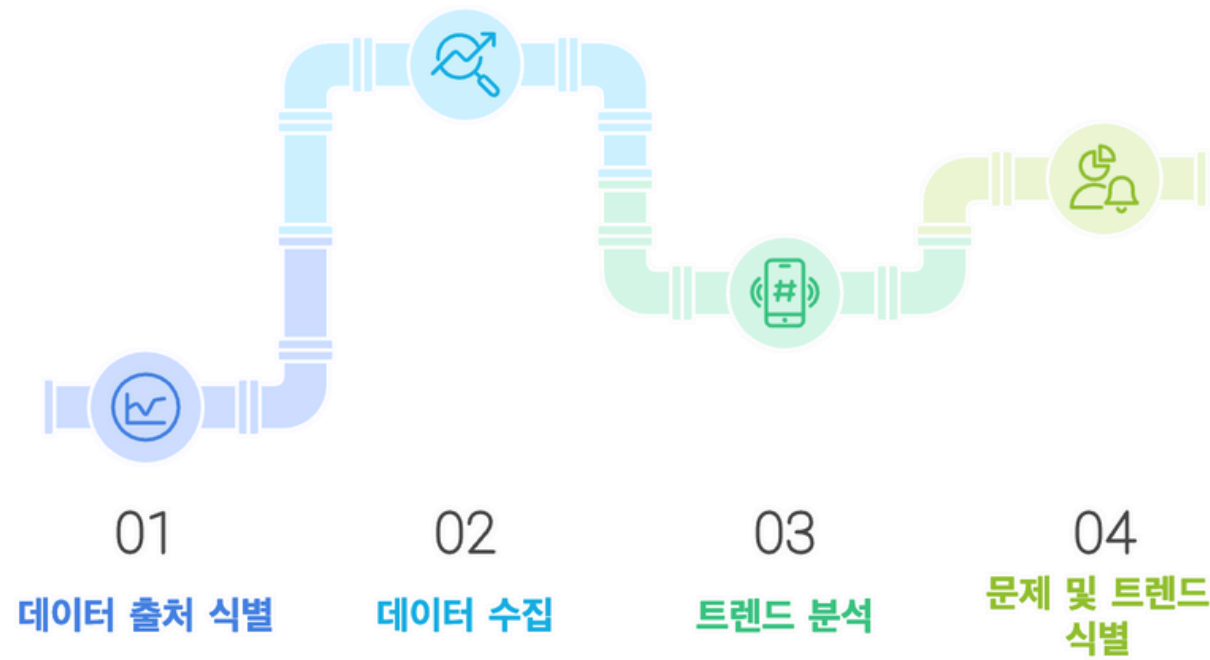
대상 독자

본 보고서는 로컬 상권에 관심 있는 연구자 및 지역 상권 관리 주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며, 데이터 사이언스를 바탕으로 한 상권 성장 가능성 분석과 실질적 인사이트 제공을 목표로 함.

인사이트와 잠재력



서론



본 보고서는 남문전통시장을 구성하는 주요 상권들의 데이터 기반 변화 추이를 심층 분석하고, 그로부터 지역 상권 발전을 위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남문전통시장 내 주요 시장들의 현재 상황과 향후 잠재력을 데이터 사이언스 설계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로컬 상권 관리 주체와 연구자에게 실질적인 성장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데이터 범위와 수집 방법

본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는 2016년 1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의 기간 동안 수집된 자료로, 네이버 데이터랩 검색어 트렌드와 소셜 미디어 언급량을 바탕으로 상권의 온라인 관심도를 평가함.

데이터 수집은 네이버, Sometrend 등의 데이터 출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각 시장에 대한 검색 지수 및 소셜 언급량 변화 추이를 기반으로 주요 이슈와 트렌드를 파악함.

분석 방법

보고서는 논리적 연결성에 기반한 상권별 변화 지표 해석 및 미래 가능성 예측을 통해, 영동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의 특성 및 기회 요소를 도출함.

각 시장의 주요 키워드와 연관어, 긍정-부정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함.

목차

1. 남문전통시장 개괄
2. 데이터 분석으로 본 영동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3. 데이터 분석으로 본 못골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4. 데이터 분석으로 본 지동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5. 딥 다이브 인 깎지 뉴스
6. 데이터로 찾아낸 상권의 핵심 가치와 발견된 가능성

남문전통시장 개괄



남문전통시장은 수원 팔달문 주변에 자리 잡은 9개의 전통시장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경기 최대 규모의 재래시장 중 하나임. 지동시장, 영동시장, 못골종합시장, 팔달문시장, 미나리광시장, 시민상가시장, 구천동 공구시장, 남문로데오시장, 남문패션1번가시장이 밀집하여 독자적인 시장 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제품군과 상권 특색을 지니고 있음

남문전통시장 일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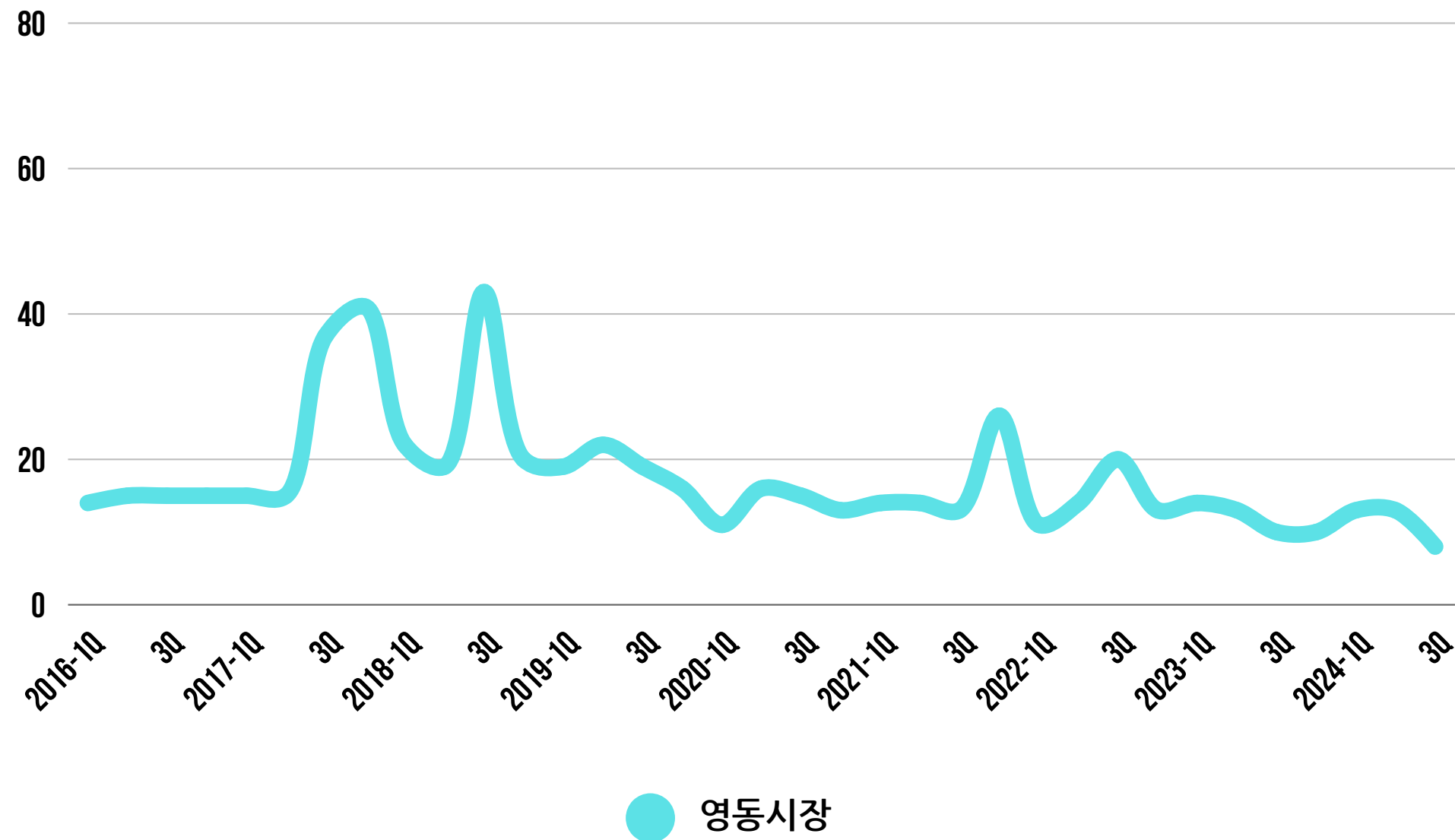
남문전통시장은 팔달문과 수원화성 등 역사적 자원과 연계되어 있어, 관광과 전통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소비 패턴을 보임. 각 시장은 지역 상권의 필수적인 생활용품부터 관광객을 겨냥한 먹거리와 체험형 상점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주말과 명절 기간에는 방문객 수가 크게 증가함. 이와 같은 유동 인구의 변화는 남문전통시장 전체가 지닌 매력과 강력한 상권 결집 효과를 뒷받침함

남문전통시장의 성장 가능성

보고서는 논리적 연결성에 기반한 상권별 변화 지표 해석 및 미래 가능성 예측을 통해, 영동시장, 못골시장, 지동시장의 특성 및 기회 요소를 도출함.

각 시장의 주요 키워드와 연관어, 긍정-부정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안함.

데이터 분석으로 본 영동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출처: 수원영동시장검색지수_2016.01.01-2024.08.31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1. 분석 데이터 개요: 영동시장의 주요 관심 지표 변화

영동시장은 남문전통시장의 입구 역할을 수행하며, 주변 상권으로 사람들을 유입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음.

주요 이슈였던 28청춘 청년몰과 푸드트럭존은 2017년 이후 젊은 층의 방문을 유도하며 영동시장의 명성을 한층 끌어올린 바 있음.

구체적으로, 2017년 푸드트럭존이 개장하면서부터 시작된 관심은 네이버 검색 지수에서 2018년 분기 최고치인 43을 기록하였고, 같은 해 여름에는 77에 달하는 검색 지수를 달성하는 등 단기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음.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검색 지수는 점진적으로 하락하였고, 2024년 상반기에는 초기의 인기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이는 28청춘 청년몰과 푸드트럭존이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지만, 지속 가능한 방문 유인 요소를 확장하지 못했다는 분석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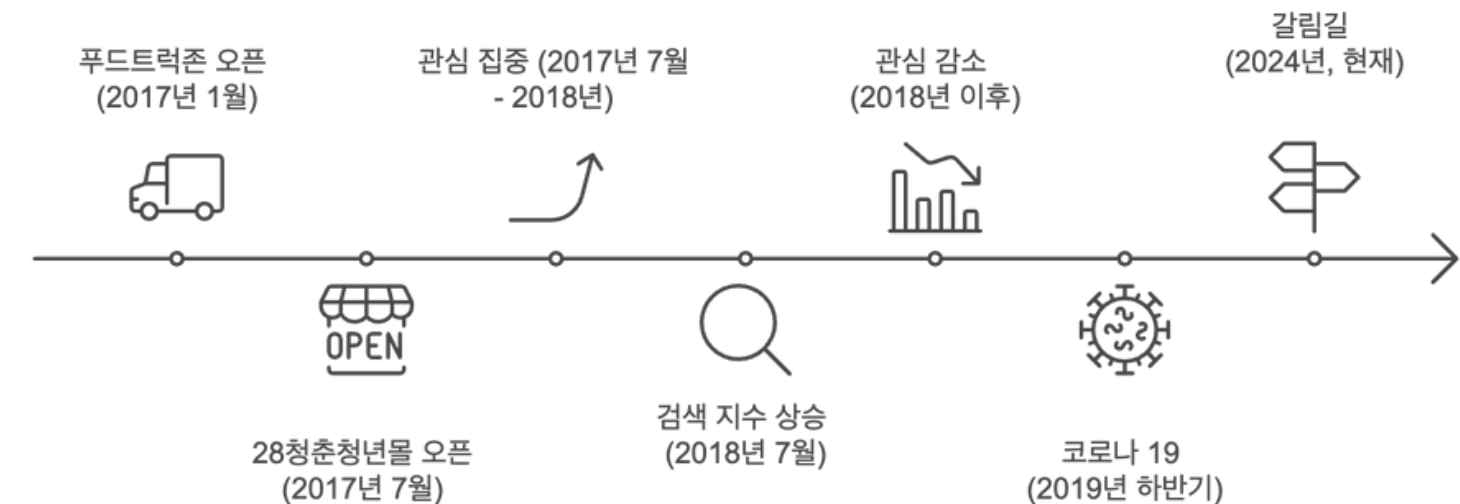
데이터 분석으로 본 영동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2. 콘텐츠 생애주기 만료로 인한 유입 동력 유지의 어려움

단기적 관심에서 장기적 방문으로 전환되지 않은 이유: 소비자 기대와의 간극

영동시장은 28청춘 청년몰과 푸드트럭존 개장 이후 2017-2018년 동안 젊은 층의 유입에 성공하며 단기간에 높은 검색 지수를 기록했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 관심은 서서히 감소했고,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가 부재하면서 재방문 의지가 줄어들었음. 이 현상은 검색 지수 하락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언급량에서도 거의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됨.

- **소비자 온라인 행동 데이터:** 네이버 검색 트렌드에서 영동시장의 검색 지수는 2018년 최고점 이후 2024년 상반기에는 8로 급감하였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영동시장에서 제공되는 경험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 느꼈음을 시사함.
- **소셜 미디어의 연관어 분석에서조차** 영동시장은 언급량이 너무 적어 특정 연관어를 추출할 수 없을 정도로 소비자들의 온라인 관심이 부족했음.
- **소비자와의 소통 부재 및 온라인 기반의 지속적 홍보 부족으로 인한 결과로 해석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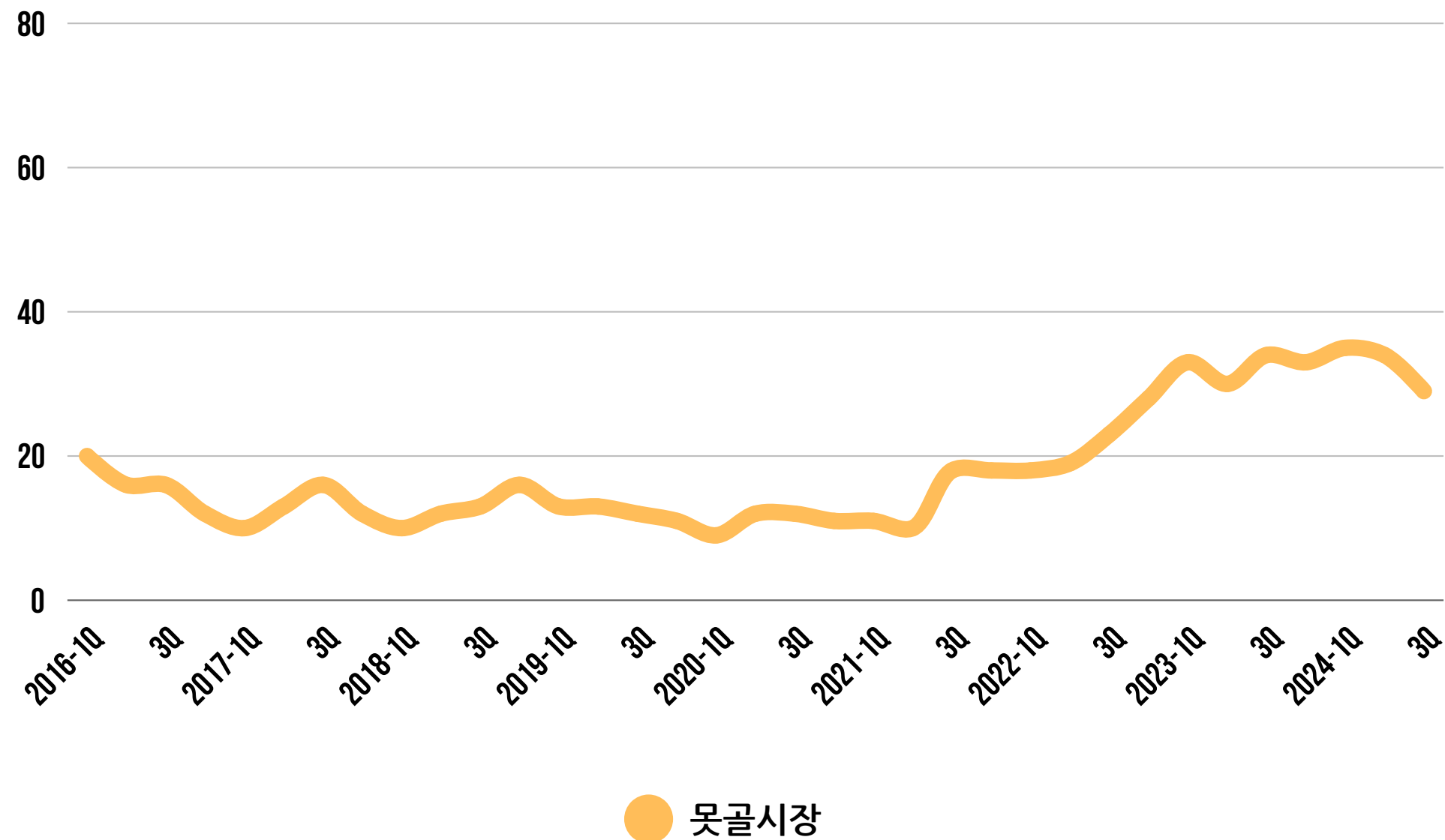


소비자 요구와 관심사의 변화: 데이터 기반 소비자 인식 부재

영동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기대는 단순한 방문을 넘어 새롭고 변화하는 경험에 대한 요구로 전환되었음. 특히 청년몰과 푸드트럭존은 개장 초기에는 신선한 경험을 제공했으나, 이후 트렌드 변화를 반영한 추가적인 콘텐츠 개발이 부족한 상태였음.

- **소비자의 변화 인식 부족:** 소비자들은 다양한 상품과 경험을 원하는 경향이 있으나, 소셜 미디어와 검색어 연관어 분석 결과, 영동시장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발전이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남.
- **검색 지수와 언급량 감소를 통해 소비자의 변화된 요구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콘텐츠에 머무르고 있었음**

데이터 분석으로 본 못골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출처: 못골시장검색지수_2016.01.01-2024.08.31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1. 분석 데이터 개요: 못골시장의 주요 관심 지표 변화

못골시장은 남문전통시장 내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전통시장으로, 채소, 과일, 고기, 생선과 같은 신선 식재료를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는 것이 특징임. 못골시장은 수원 시민과 남문전통시장 방문객의 생활 필수품 구매처로 인식되며, 신선한 농수산물과 가정식 반찬, 옛날 통닭 등 전통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이 주를 이루고 있음.

수원 남문 9개 전통시장의 핵심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수원 지역에서 장보기 좋은 곳으로 평가받고 있음.

못골시장은 과거와 현재의 주요 고객층으로 인근 주민으로 주부, 중장년층을 기반으로 형성되었으며, 이들은 주로 생활 소비를 목적으로 못골시장에 방문함.

네이버와 소셜 미디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못골시장의 주요 검색 지수와 소셜 언급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태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온라인 검색어와 소셜 연관어 도출이 어려울 정도로 언급량이 적다는 점이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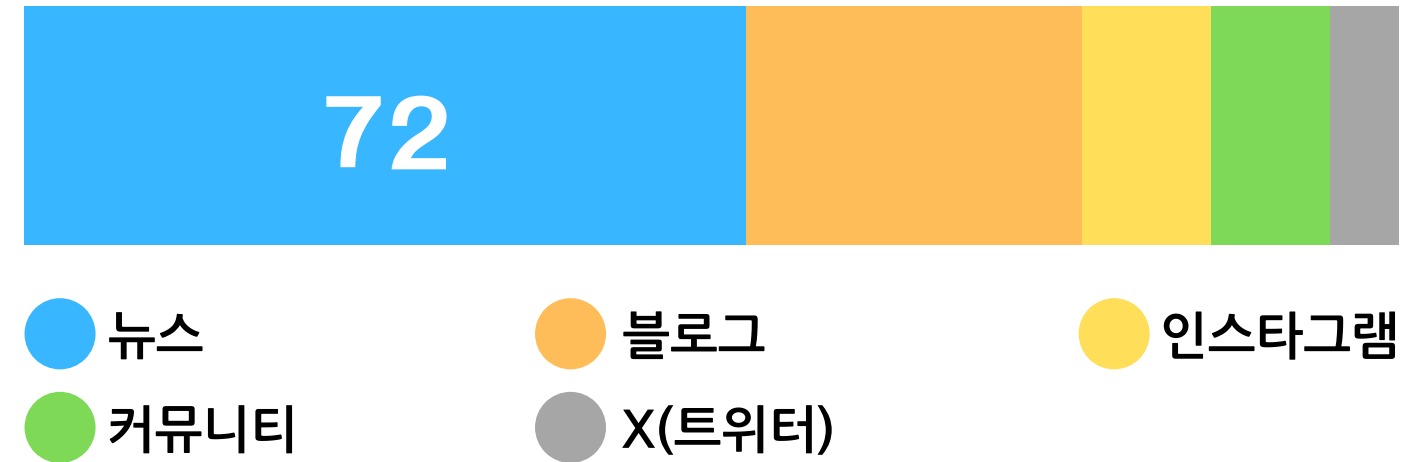
데이터 분석으로 본 못골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2.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간극에서 찾아야 할 새로운 소비자 소통 전략

오프라인 활기와 온라인 지표의 괴리

그래프를 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검색 지수는 완만하게 유지되었으나 2022년 이후 상승세를 보임에도 여전히 그 폭은 제한적임. 이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시장을 자주 방문하지만, 온라인에서의 관심도는 비례하여 증가하지 않았음을 나타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못골시장의 장점을 경험하면서도, 이를 온라인 상에서 공유하거나 언급하는 빈도는 낮다는 것이 핵심 페인포인트임.

- **소셜 미디어 언급량의 부족:** 못골시장의 검색 지수는 상승 중이지만, 소셜 미디어 언급량이 여전히 적음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의 인지도가 약함을 보여줌. 이는 소비자들이 못골시장에서의 경험을 온라인 상에서 소통하지 않거나, 다른 잠재적 방문자들이 시장을 발견할 기회가 적다는 문제로 이어짐.
- **검색 지수의 완만한 상승:** 검색 지수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나, 못골시장이 오프라인의 활기와 대조적으로 폭넓은 디지털 홍보 효과를 누리지 못함. 이는 전통시장 특유의 매력을 온라인에서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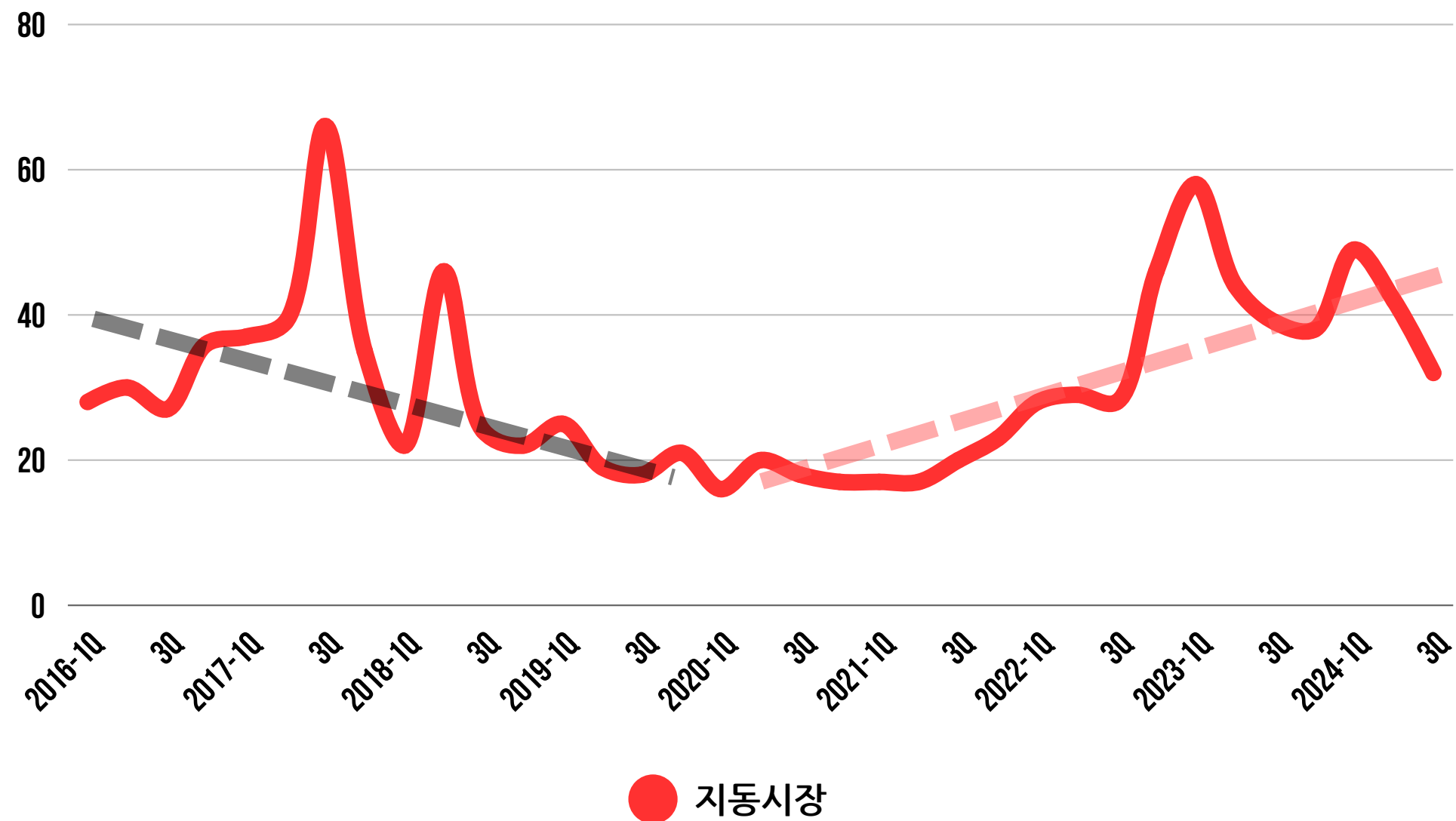
출처: 2024년 못골시장 소셜 언급량_2024.01.01-2024.09.25_Sometrend 언급량 분석

소비자 소통과 스토리텔링을 통한 상권 강화

못골시장은 오프라인에서의 강력한 시장 경험을 디지털화하여, 소셜 미디어와 검색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와의 상호작용을 증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검색 지수의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도 소셜 미디어 상에서 시장 이야기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디지털 콘텐츠가 부족함이 문제점으로 드러남.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의 특징을 살린 스토리텔링 기반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스토리텔링과 브랜드 이미지 구축:** 시장 내 인기 가게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비자와의 감성적 유대를 강화하고, 못골시장의 전통과 생활적 매력을 브랜딩할 필요가 있음.
- **디지털 마케팅 전략 강화:** 못골시장은 단순한 장보기 장소 이상의 매력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소셜 미디어에서 소비자와의 소통 도구로 활용함으로써, 디지털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데이터 분석으로 본 지동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출처: 지동시장검색지수_2016.01.01-2024.08.31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1. 분석 데이터 개요: 지도시장의 주요 관심 지표 변화

지동시장은 수원 남문전통시장의 일부분으로, 순대곱창전골이라는 특정한 먹거리로 유명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관심을 끌어왔음.

2020년대 초반부터 검색 지수가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 펜데믹 이후 온라인에서의 유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임. 특히 순대와 곱창이라는 명확한 콘텐츠 중심의 상권으로 자리 잡고 있어, 특정 먹거리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강한 인지도를 형성함.

검색 트렌드에 따르면, 지동시장은 특정 계절과 요일에 따라 검색량이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며, 주말과 휴일에 집중적으로 검색량이 상승함.

이는 지동시장이 평일보다 주말에 활발하게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음을 시사하며, 단기적 방문 수요에 대응한 마케팅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줌.

또한, 소셜 미디어 분석에서도 순대와 곱창을 중심으로 특정 키워드가 자주 언급되며, 소비자들이 지동시장을 음식 중심의 체험 장소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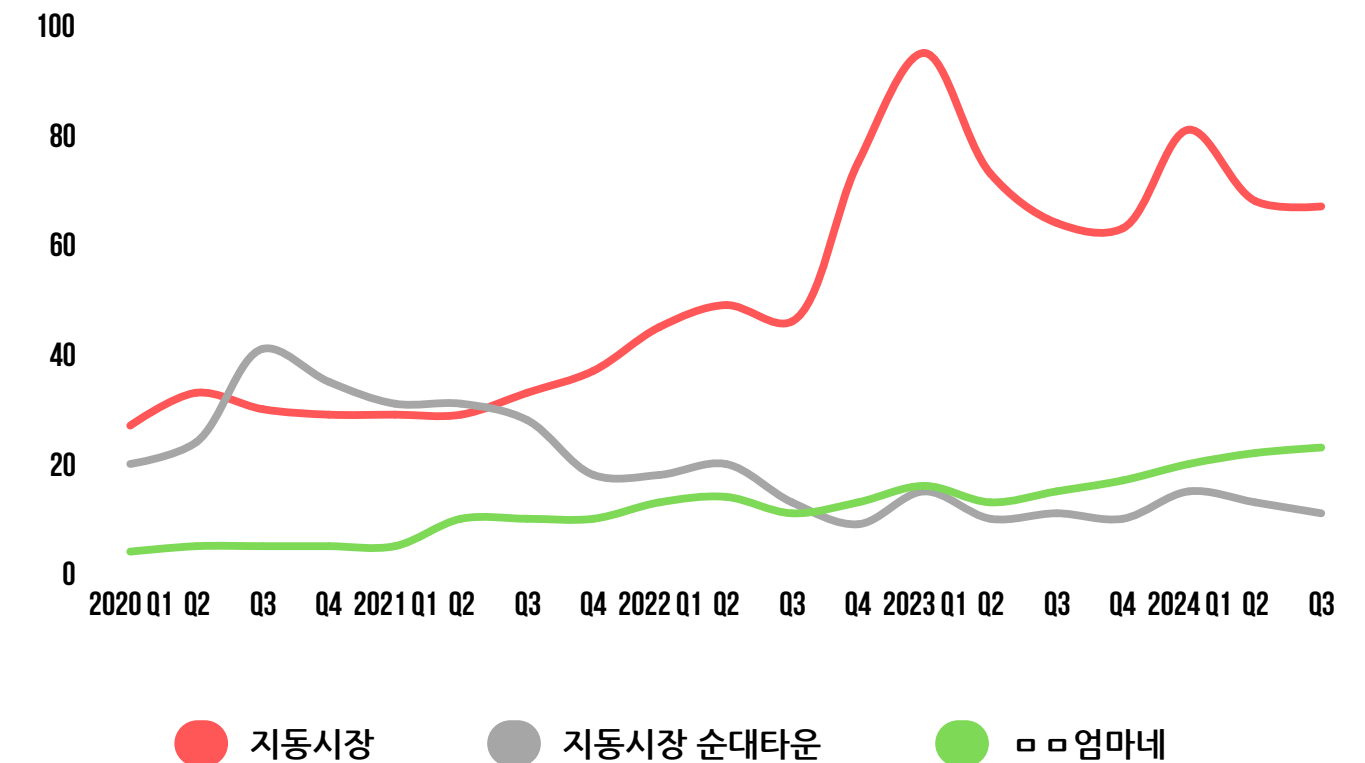
데이터 분석으로 본 지동시장 변천사와 트렌드 인사이트

2. 지동시장, 이제는 수원만의 시장이 아니다

플랫폼별 언급 특성: 소셜 미디어에서의 소비자 관심도와 비주얼 매력

블로그에서는 지동시장의 구체적인 방문 경험이 심층적으로 다뤄지며, 방문객들은 상인들과의 상호작용을 상세히 묘사함. 블로그 게시물에서는 **‘모모엄마네’**와 같은 특정 점포가 자주 언급되며, 지동시장을 방문하는 특별한 이유로 설명됨. 이를 통해 블로그는 시장 체험의 다채로운 요소와 친근한 상인 문화를 부각시키며, 지동시장이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감성적 유대를 형성하는 장소로 인식되도록 함.

인스타그램에서는 #지동시장, #순대타운, #모모엄마네 등 해시태그와 함께 사진과 짧은 설명을 통해 시각적 매력을 중심으로 지동시장을 홍보함. 인스타그램의 특성상 소비자들은 주로 비주얼 중심의 콘텐츠를 공유하여 지동시장의 독특한 분위기와 상인들의 활기를 부각함. 이는 외부 방문객들이 지동시장을 체험형 관광 명소로 인식하게 하며, 지동시장이 일상 소비보다 특별한 경험을 제공하는 곳으로 자리매김하게 함.



데이터 출처: 검색지수 비교_지동시장-지동시장순대타운-원조엄마네_2020.01-2024.09
_네이버DataLab 검색어트렌드

언급량 증가 요인

팬데믹 이후 지역 체험형 장소 선호 증가: 팬데믹 이후, 소비자들은 제한된 외부 활동에서 벗어나 지역 내에서 독특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 지동시장은 이러한 트렌드에 부합하며, 소셜 미디어 상에서 지역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부각됨.

특정 점포의 인기 상승: 특히, ‘모모엄마네’와 같은 특정 점포는 지동시장의 대표적 장소로 인식되며 지속적으로 언급됨. 이러한 개별 점포의 인기는 지동시장 전체의 인지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외부 방문객들의 방문 욕구를 자극함.

딥 다이브 인 깍지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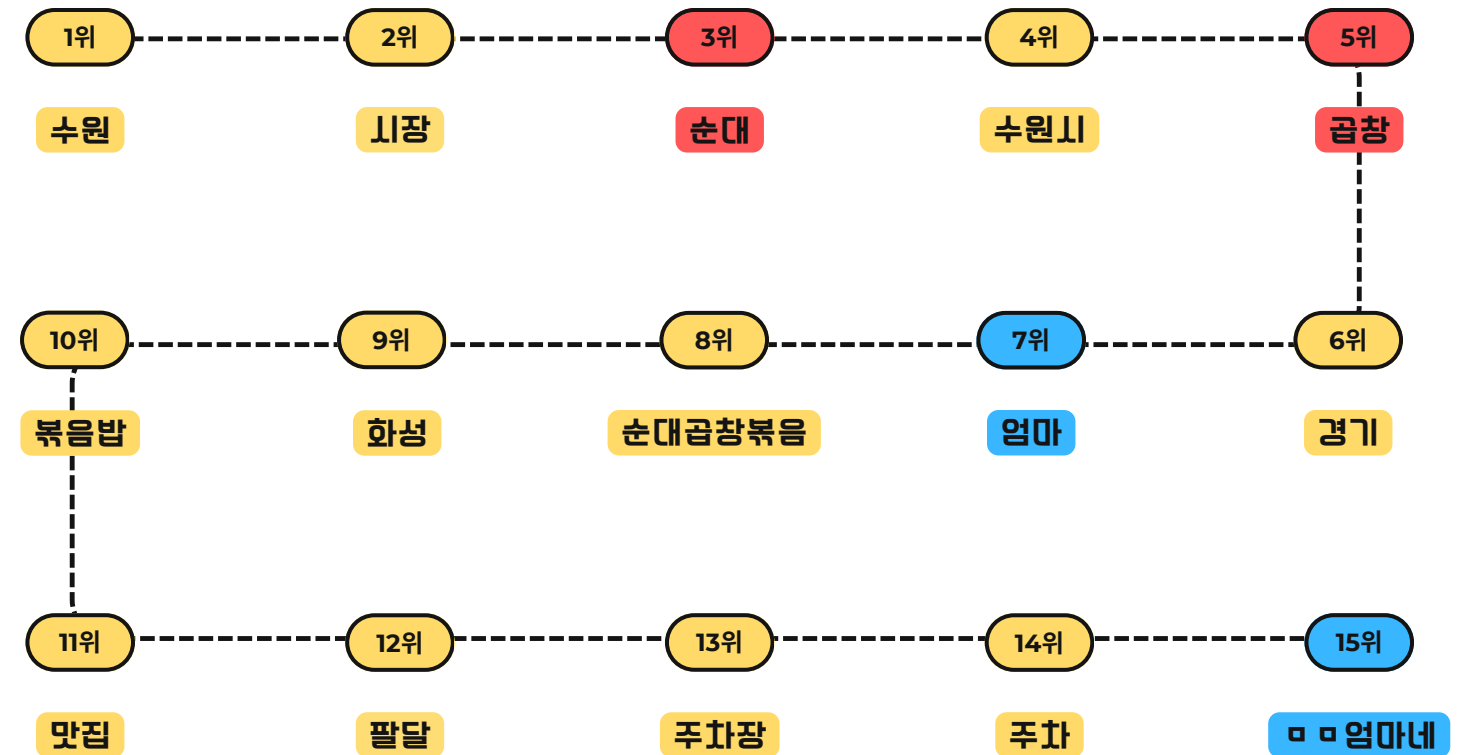
1. 딥 다이브 인 깍지 뉴스: 지동시장-핵심 콘텐츠에 기반한 시장

주요 연관어에 대한 소셜 데이터 분석

지동시장의 주요 연관어는 '순대'(3위), '곱창'(5위), '엄마'(7위), 'ㄹㅇ엄마네'(15위)

연관어 '순대'와 '곱창': 순대와 곱창은 지동시장의 대표적인 메뉴로, 방문객들이 이 먹거리 체험을 목적으로 시장을 찾고 있음을 나타냄. 이러한 연관어는 지동시장이 단순한 전통 시장을 넘어, 특화된 먹거리 상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보여줌. 특히, 순대와 곱창은 지동시장의 상징적 아이템으로, 시장 전체의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연관어 '엄마'와 'ㄹㅇ엄마네': '엄마'와 'ㄹㅇ엄마네'는 지동시장의 특정 점포를 지칭하며, 방문객들에게 친근함과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함. 이러한 연관어가 상위에 위치한 것은 지동시장이 소비자들에게 단순한 소비 공간을 넘어 상인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감성적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소비자들이 지동시장에서 경험하는 따뜻한 환대와 인간적 교류가 시장의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냄.



출처: 지동시장 연관어 순위_202401.01-2024.09.21_Sometrend 연관어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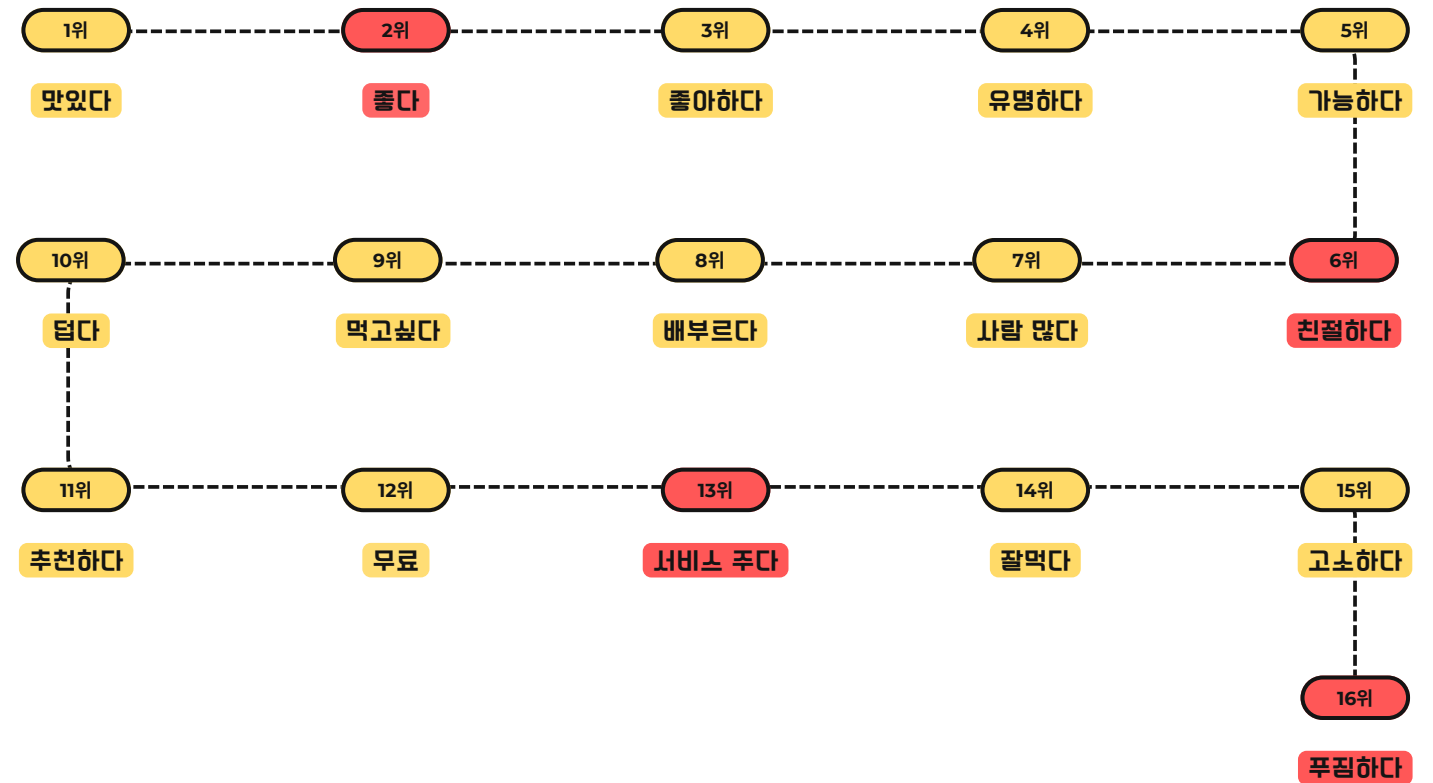
연관어 변화와 소비자 인식 분석

최근 지동시장의 연관어 트렌드는 브랜드화된 점포와 특정 먹거리를 중심으로 소비자 인식이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방문객들이 지동시장을 특정 브랜드와 연관된 먹거리 명소로 인식하게 됨을 시사함.

변화된 연관어의 의미: 과거의 전통적인 시장 연관어와 달리, 현재는 '순대', '곱창', 'ㄹㅇ엄마네'와 같은 특정 브랜드 및 먹거리가 상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지동시장이 단순한 지역 상권이 아닌 브랜드와 구체적인 메뉴를 찾는 목적지로 인식되고 있음을 나타냄.

소비자 인식의 전환: 'ㄹㅇ엄마네'와 같은 브랜드화된 점포의 인기 상승은 지동시장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반영함. 이러한 연관어 변화는 지동시장이 특정 브랜드와의 연관성 속에서 명확한 이미지와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으며, 외부 방문객에게도 긍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을 시사함.

딥 다이브 인 깍지 뉴스



출처: 지동시장 긍-부정어 순위_202401.01-2024.09.21_Sometrend 연관어 분석

2. 딥 다이브 인 깍지 뉴스: 지동시장-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주요 긍정 연관어 분석

‘좋다’(2위)라는 단어는 지동시장에서 경험한 여러 요소들이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음을 시사함.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시장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재방문 의사를 가지는 요인으로 작용함.

‘친절하다’(6위)는 지동시장에서의 상인들과의 상호작용을 반영함. 소비자들은 상인들의 따뜻한 환대를 통해 시장을 편안하고 인간적인 소통의 장으로 인식하게 됨. 이는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고객과 상인 간의 신뢰와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함.

서비스 주다’(13위)는 시장에서 제공되는 추가적인 서비스나 혜택에 대한 만족감을 나타냄. 이 단어는 소비자들이 지동시장에서 가치 있는 구매 경험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며,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느낌이 시장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만들고 있음. 이는 단순히 물건을 사는 공간이 아닌, 고객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별화된 쇼핑 경험을 제공함.

긍부정어 통합 인사이트

충족된 가성비: 다양한 연관어들이 지동시장이 방문객들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음을 보여줌. 이는 재방문과 추천으로 이어지는 주요 요인이며, 지동시장을 충성 고객층이 형성되는 공간으로 만듦.

만족한 가성비: 상인들의 친절함과 풍성한 양 제공 등은 시장의 감성적 가치를 높이며, 소비자들에게 감정적 유대감을 형성하게 함. 이는 단순한 상업적 거래를 넘어, 소비자들이 지동시장에서 따뜻함과 친근함을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로 작용함.

바이럴로 이어지는 브랜드 체험: ‘서비스 주다’와 같은 연관어는 지동시장이 소비자들에게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함. 이는 지동시장이 다른 전통 시장과 차별화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인식으로 이어져, 지동시장의 독자적 브랜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함.

데이터로 찾아낸 상권의 핵심 가치와 발견된 가능성

데이터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가장 근접한 현재를 읽어내는 방법임. 영동시장의 젊은 층 유입, 못골시장의 지역 밀착형 소비, 지동시장의 전통 먹거리 인기는 지금 이 순간 소비자들이 남긴 디지털 흔적 속에 담긴 현재의 움직임을 나타냄. 이러한 데이터 기반 분석은 남문전통시장이 소비자 요구를 반영하고, 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요소임.

남문전통시장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변화하는 현재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것임. 데이터는 모든 시장 상권에 걸쳐 다양한 고객의 목소리를 포착하게 하며, 이러한 목소리들이 남기는 흔적이 바로 남문전통시장이 쫓아가야 할 가장 빠른 현재임.

남문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소비자들의 데이터 흔적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현재를 쫓아가며, 그들이 원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음. 각 시장이 지닌 고유의 강점과 소비자의 요구가 만나는 지점에서, 남문전통시장은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내는 상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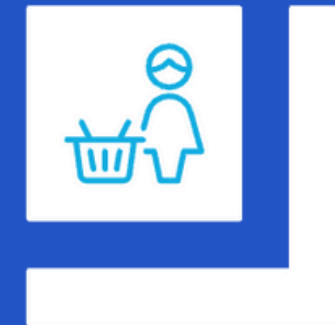
디지털 흔적



데이터 분석



시장 적응



소비자 트렌드